



正史

2026 8

(845)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 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 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 1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 12 Ⅱ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기념공연 성대히 진행
- 14 Ⅱ 전승 73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 진행
- 1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전상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2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2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2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28 Ⅱ 구축함 《강건》호에서 함무장체계들의 성능평가시험 진행
- 32 Ⅱ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확대회의 진행
- 3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3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소 식

- 38 Ⅱ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방문
- 40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
- 44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가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쭈동지와 상봉
- 45 Ⅱ 벨라루씨공산당대표단 우리 나라를 방문
- 46 Ⅱ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8차대회 진행
- 50 Ⅱ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기념편집

- 52 Ⅱ 조국해방 81돐
- 54 Ⅱ 개선문

오늘의 조선

- 56 Ⅱ 산악협곡도시 검덕지구를 찾아서
- 60 Ⅱ 아이들의 배움의 궁전
- 66 Ⅱ 관록있는 교향악단
- 70 Ⅱ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펼쳐진 인파십리
- 76 Ⅱ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력 사

- 80 Ⅱ 개성의 대표적인 력사유적들

표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뒤표지: 금강산의 상팔담
편집: 변일진, 김규성, 리금주, 조령, 조효성



6



28



46



56



7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불길만리를 헤치며 백전백승의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여온 첫 세대 혁명가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안으시고 주작봉마루에 오르시여 전쟁승리에

특출한 공헌을 한 김책동지, 강건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의지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전승세대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절불굴하는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떠올린 근본바탕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개척과 계승으로 성스러운 우리 위업의 전진과정에서 7.27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고 줄기찬 대승으로 역세계 이어질것이며 선렬들의 애국의 넋이 깃든 우리 조국은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끝없이 룡성번영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창조하고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억년기들을 다져준 혁명렬사들이 우리의 모든 계승세대의 빛나는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굳건한 신념의 기둥으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3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따듯이 축원하시었다.

참전렬사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창건의 첫 기슭에서 값비싼 선혈로써 영웅조선의 존위를 거연히 떠올리며 조국수호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려사들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추모상징물 《영웅들의 녀》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교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련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그날로부터 지나간 세월이 흘렀지만 청소한 요람기의 신생조선이 제국주의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는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경이적인 패승으로, 불멸의 영웅전기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군대와 인민이 열렬한

사랑과 백절불굴하는 강력으로 쟁취한 7.27의 기적은 강국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취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없이 철저히 계승해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우리 혁명의 무한대한 저력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영웅적인 력사를 피로써 개척한 전승세대의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무비의 완강성,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과 의지에 충실할 때 우리의 부국강병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려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 려사탑에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안치되어있는 모안영동지의 묘를 찾으시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교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기념공연 성대히 진행



영웅한 전하의 조국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이적인 변혁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기념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경축 행사에 초대된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장수를 따듯히 축원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와 전쟁로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래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회를 더해주며 서곡 《우리의 7.27》, 《7.27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년대들에 높이 올려퍼진 전승찬가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세대 조국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전승을 안아온 승고한 정신과 넋이 맥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 그 뜻에 충실한 새세대들의 용용한 보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승 73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년대를 넘어 더욱 승화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력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3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 박정천원수가 전승 73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웅적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오는 근위군기를

나뭇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종대들에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

백승의 최정예대로,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 해방전쟁승리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시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데 이어 오매에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숙원하는 부국강병의 새시대를 가슴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령장, 위대한 아버지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로써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것은 영웅적인 년대에 뒹어넘친 자존의 념과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전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힘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여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앞에 서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승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화의 영웅세대가 그러보던 부흥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로병, 전시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로당의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2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이민위천, 부국강병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당과 국가를 참다운 인민의 당,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로 승승장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년기틀을 다져주신 희세의 대성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에 넘쳐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책임일군들,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무궁한 존엄과 영광을 위하여 새시대 거창한 변혁투쟁의 전위에서 더욱 견결히, 더욱 과감히 분투해나갈 엄숙한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락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3일 함경남도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락원군 세포리에 일떠서고있는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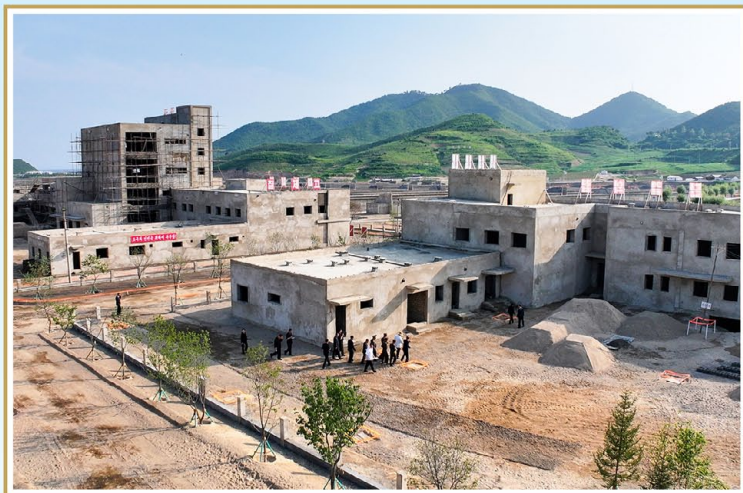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한눈에 안겨오는 세포리지구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결심할 때만 해도 초라하기 그지없던 이곳에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와 리상적인 어촌문화지구가 일떠서고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온실농장까지 건설되면서 하나의 산업지구로 전변되고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의 경영관리 실태에 대하여서도 료해하시고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에서는 군내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과 자립적 경제발전토대구축을 위한 훌륭한 밑천이 마련되는데 맞게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집행해나감으로써 군을 해안지대특성이 살아나는 새시대의 문명을 개척하고 선도해나가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락원군 읍지구에 일떠서고있는 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으로 향하는 인민적투쟁을 줄기찬 양양으로 끌어올리는데서 건설사업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지방발전정책을 거목적으로 확대심화시켜 지방의 변혁을 보다 가속화해나가실 구상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마감시공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감독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원림설계를 잘하고 적기에 맞추어 원림복화사업을 선행시켜 진행할데 대한 문제, 군자체의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주민생활 용수보장과 오수처리를 비롯하여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의료일군대렬을 잘 준비시켜 현대적인 병원운영사업을 편향없이 진행할데 대한 문제,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보장대책을 책임적으로 세울데 대한 문제,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건설의 완공과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에 동원된 전체 군인건설자들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주도하는 기본핵심, 견인기라는 자각을 안고 자기의 영예로운 본령과 전위적 역할에 변함없이 충실하여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를 지방이 또 한번 변하고 비약하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녀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동맹력사에 전례없는 대회를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녀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면적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려정우에는 조국의 전진에 힘찬 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녀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녀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 동원자적역할은 녀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리상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숨쉬는 녀성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데없는 녀성들의 위력한 애국집단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한뜻이 되어 조국의 룡성변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어머니, 공산주의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구축함 《강건》호에서 함무장체계들의 성능평가시험 진행



무기체계들의 성능평가시험계획에 따라 함의 목표탐지 및 정보처리능력, 통합화력체계를 검열하고 함상포 및 자동기관포(총)들의 성능평가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평가시험계획에 따라 7월 3일 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기관포(총)들, 전자전수단들을 비롯한 주요무기체계들의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들을 참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 해군사령관 박광섭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와 선박공업상 김광일동지를 비롯한 국방 및 함선공업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참관하였다.

해당 시험은 함에 탑재된 각종 무기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을 검토, 확증하기 위한 평가공정의 일환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에 앞서 무기체계심의그루빠성원들로부터 함무장체계성능평가시험공정의 단계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무기체계들의 성능평가시험계획에 따라 함의 목표탐지 및 정보처리능력, 통합화력체계를 검열하고 함상포 및 자동기관포(총)들의 성능평가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

이어 구축함에서는 전략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반함, 반잠, 반항공무기체계들과 전략공격무기체계들의 전투적위력과 신뢰성이 책임적으로 검증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최근 우리 무기체계개발동향을 보면 우리식 해군전투체계발전의 잠재성을 확신할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를 변화시키는데서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해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를 위한 우리 당의 중대한 전략적구상에 따라 각이한 해상 및 수중전투체계들을 개발하고 군사행동수역들에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단계별과업들을 밝히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신뢰할수 있는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가 해군함대기지들을 해군지휘의 중심, 해군문화의 중심, 해군전투력의 중심으로 건설하며 각급 조선소들의 능력을 확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데 대하여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국가의 해상주권수호와 전쟁억제력행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리 해군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선 및 무기체계연구기관들에서 자기들앞에 부여된 력사적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당중앙의 강군건설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고무격려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강건》호의 시험공정을 책임적으로 끝내고 2개월내에 해군에 취역시킬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이날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선공업발전과 관련한 중요 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확대회의가 7월 9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당 제9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 현 군사 정치정세와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무력건설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 정책들이 제시된데 맞게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 및 군사기술적위력을 증대시키고 전군 각급의 전투태세강화에서 질적인 변화를 안아오기 위한 중요 정치군사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국위와 국제, 존망은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평안은 의지만 가지고서는 수호할수 없으며 오직 강력한 군대의 건설로써만, 그 강력한 힘으로 모든것을 통제하고 위협들을 억제할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수호와 함께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변함없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웅대한 구상과 자신감도 우리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중앙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일심일체의 강군으로 만들며 정치사상적 강대성과 정신도덕적우월성, 군사기술적우세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진화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강군건설방침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철저히 야전화, 현대화하고 실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각급앞에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천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발전과 사활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업들을 군대가 위임받은것은 시대와 혁명이 우리 군대에게 안겨준 최대의 믿음이고 영예로 된다고 하시면서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방대해질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무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해나가는것이



우리 군대특유의 기질이고 투쟁본때임을 력사앞에 다시금 증명해보일수 있게 전군을 총결기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중대한 군사적대책에 관한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서명 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당면한 군사기구적대책과 관련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문이 전달되었다.

회의에서는 인민군대의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확대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요한 군사적대책들은 공화국무력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무장력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강군건설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 거대한 박진력을 더해주고 사회주의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각 방면에서 우리 군대의 전투력과 활동성, 주도적역할을 비상히 제고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대한 실천적조치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가고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채부들을 일떠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안겨 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룡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6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

접견석상에서 왕호녕동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축원과 동지적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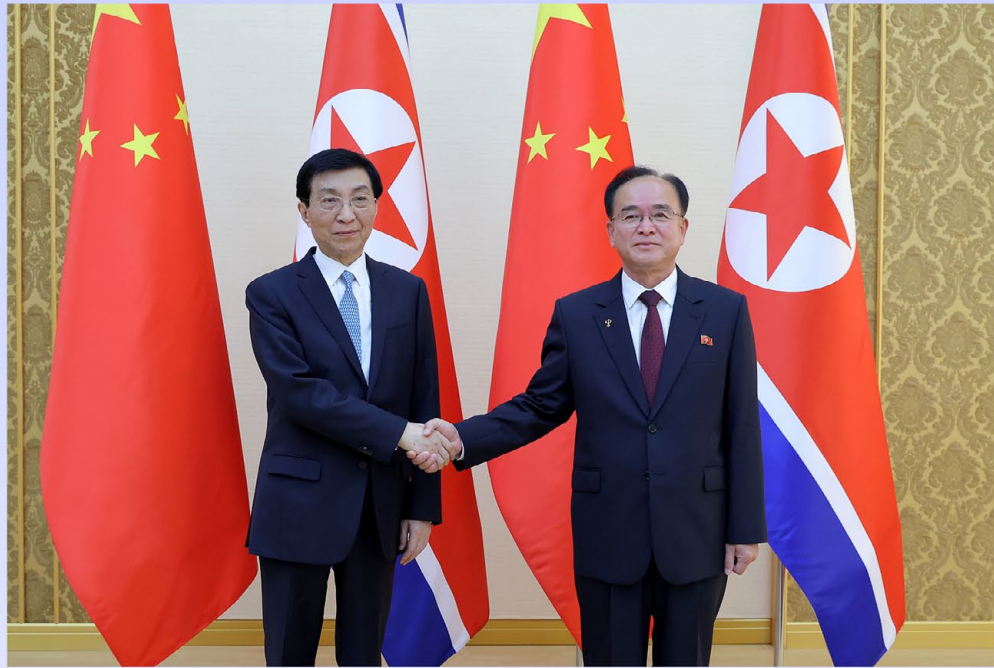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근평총서기동지가 왕호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당 및 정부대표단을 우리 나라에 파견한것은 조중관계를 증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총서기동지가 령도하는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것이라고 확인하시면서 중국공산당창건 105돐을 뜻깊게 기념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로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시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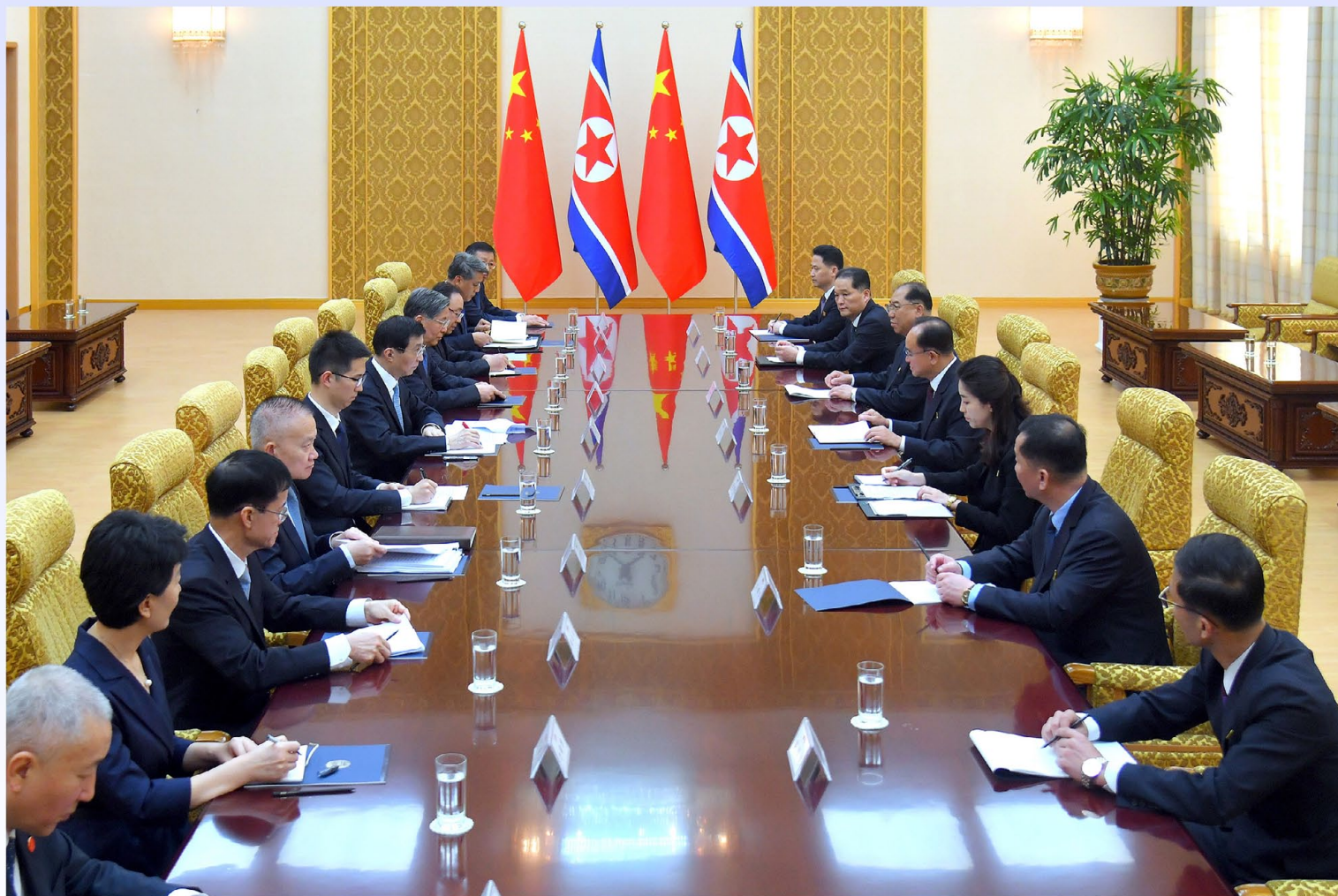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우의탑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왕호녕동지와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가 평양의사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와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당적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심화시켜 량국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은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진행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연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또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참관하여 관광지구의 봉사시설능력과 운영실태, 발전전망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가 명사십리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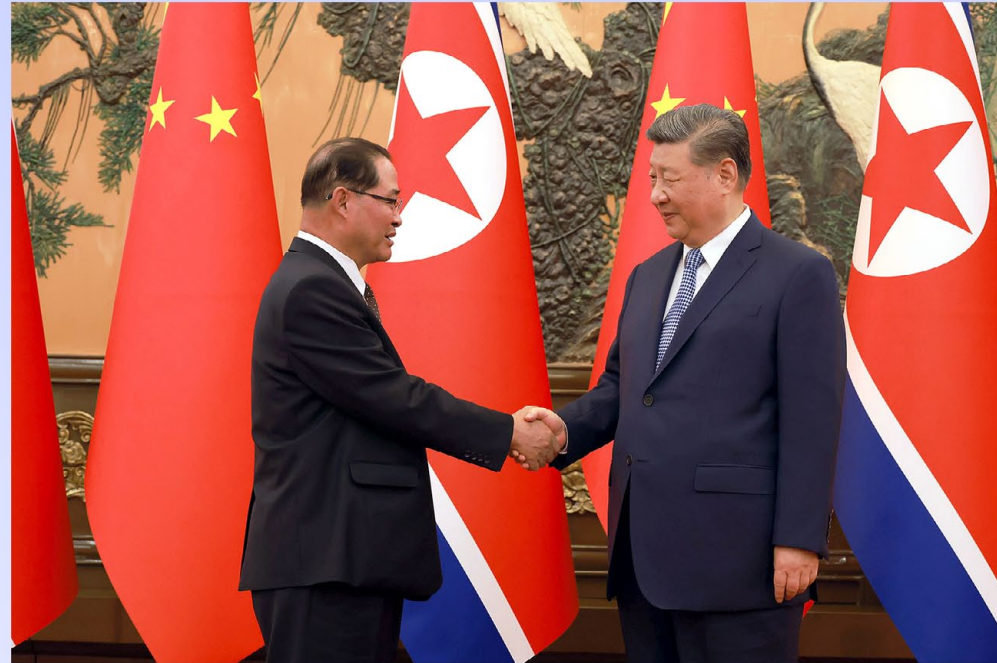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연회 진행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재성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올해 7월 11일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이 되는 날이다.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장구한 투쟁행로에서 친선과 단결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온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이날을 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재성동지가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동지와 상봉하였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연회가 베이징의 낚시터국민관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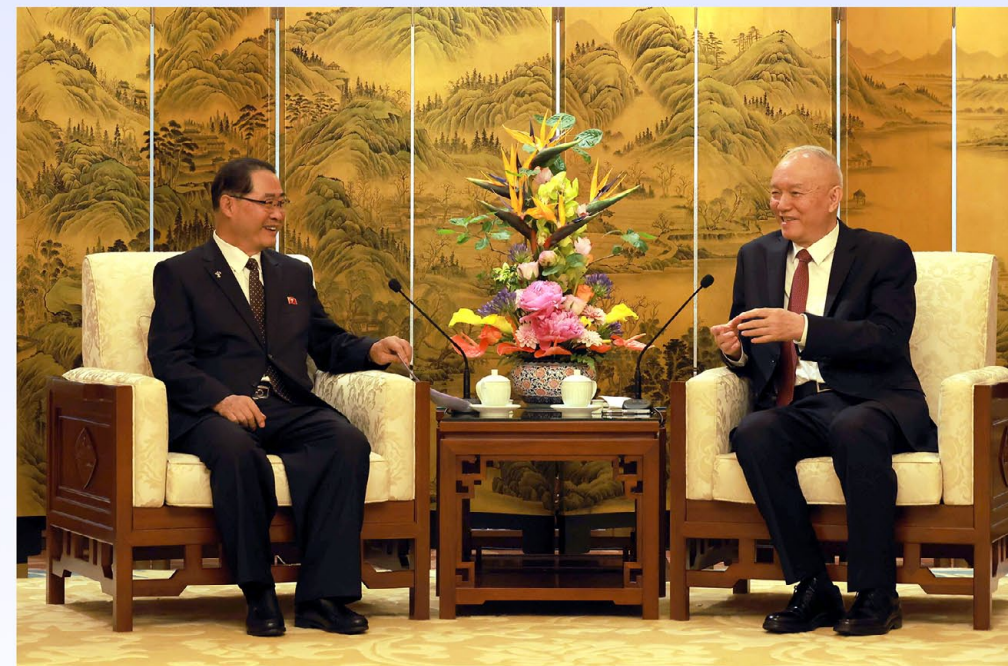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천안문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고 중국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영웅들을 추모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의식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상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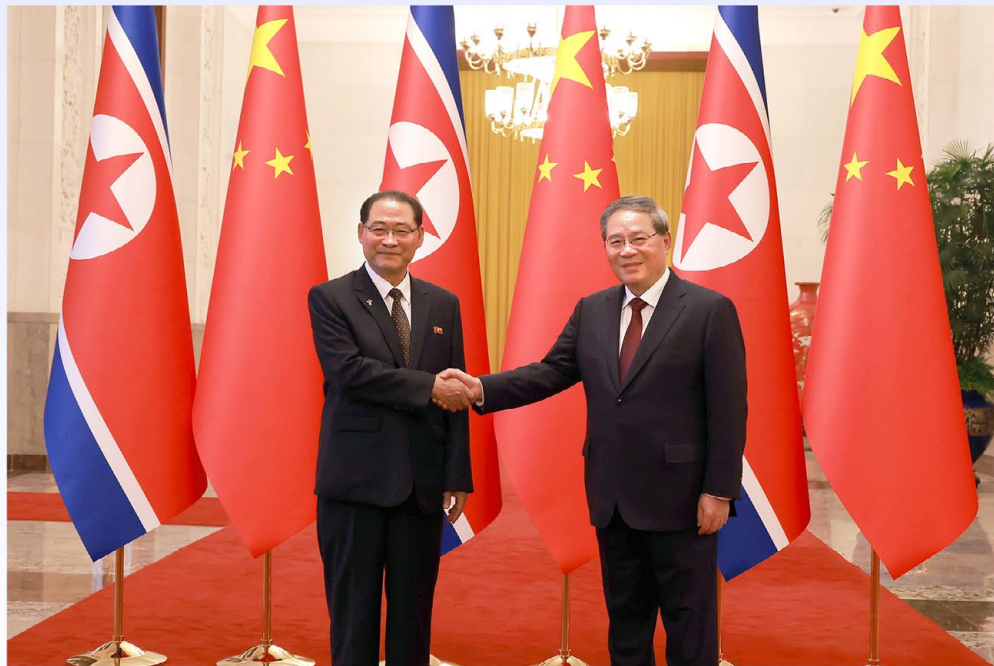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광청 주임을 만나 담화를 나누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 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동지와 회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의식 진행

박태성동지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리강동지와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중 최고수뇌분들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이룩하신 합의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베이징시와 천진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을 계속 발양하여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베이징시와 천진시의 여러곳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가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뽀찐동지와 상봉



로씨야연방 외무상 쉘르게이 라브로브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일행이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가 7월 19일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뽀찐동지와 상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뽀찐동지에게 보내시는 가장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최선희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뽀찐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가장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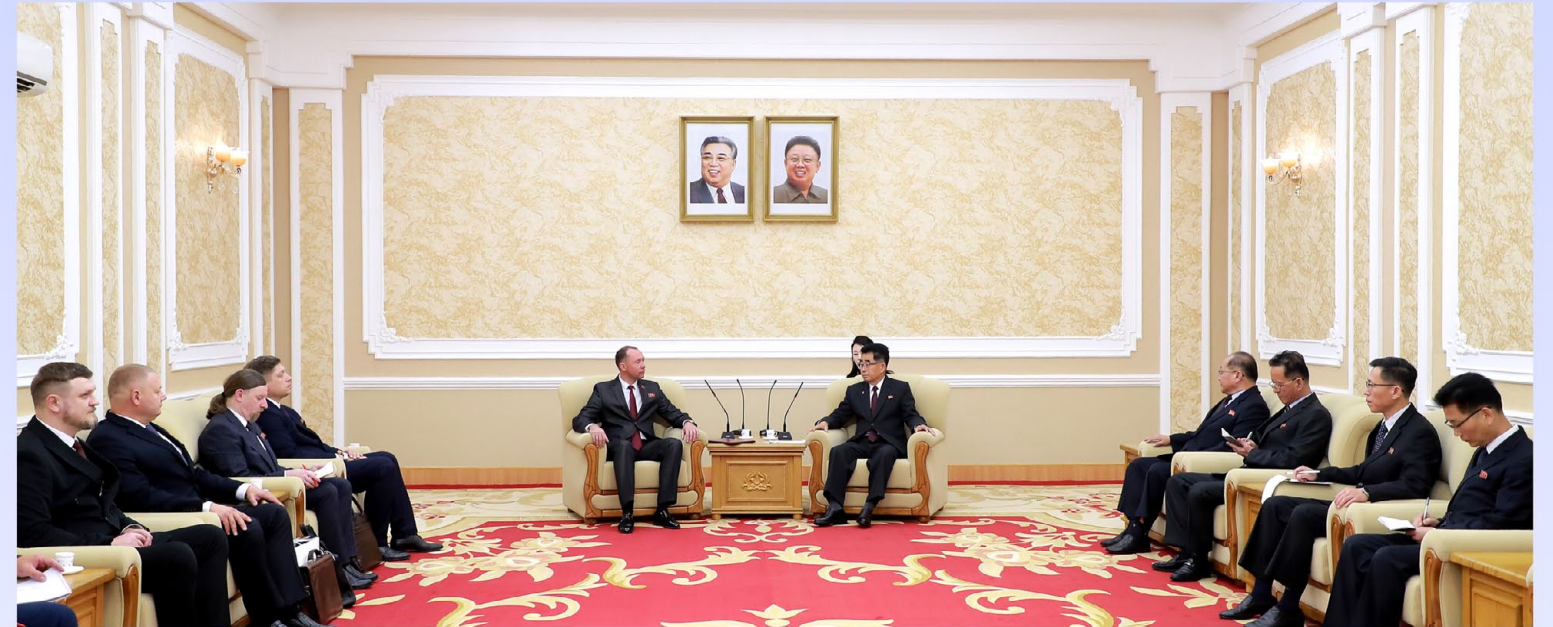
석상에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따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가 재확인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킬데 관하여 유익한

담화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로씨야연방 외무상 쉘르게이 라브로브동지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조로외무상들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는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쌍무관계의 전면적확대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벨라루시공산당대표단 우리 나라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성남동지가 7월 14일 의례방문하여온 쉘르게이 씨란꼬브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시공산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과 벨라루시공산당사이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벨라루시공산당대표단이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였다.



벨라루시공산당대표단이 해방탑을 찾았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진행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가 7월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여성동맹사업정형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고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여성동맹이 당의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활약을 보다 적극화하고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기 위한 실천과업과 방도들이 토의 결정되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녀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녀맹원들의 맹세모임, 대합창공연 《당이어 그대 있기에》,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기념 녀맹중앙예술선전대와 녀맹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위대한 어머니당 우리러

부르는 조선녀성들의 노래》 등이 진행되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는 조선녀성운동사에 새로운 전환적리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대회합으로 청사에 아로새겨졌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녀맹원들의 맹세모임, 대합창공연이 진행되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당장건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았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대회기념 녀맹중앙예술선전대와 녀맹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위대한 어머니당 우리러 부르는 조선여성들의 노래》가 진행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철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경축연회가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주체조선의 전승사가 집대성되어있는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참관자들의 물결이
굽이쳤다.

수도 평양에서 전승세대의 뉘을 이어나가기 위한 청년전위
들의 결의모임과 계승의 행진이 진행되고 각지에서 전쟁
로병과 청소년학생들과의 상봉모임, 무도회들이 진행된
것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조국해방 81돐

1945-2026

1945년 8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어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력사의 날이다.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인민의 항일대전은 무장을 잡고 자력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라승한 민족해방전쟁이었다.

조국해방,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진 주체적혁명력량의 위력, 전민항쟁의 위력으로 안아온 고귀한 전취물이었다.



개선문

수도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높이가 60m인 개선문이 있다.

개선문은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평양에 개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82년 4월에 건립한 대기념비이다.

1만 500여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개선문의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를 보여주는 《1925》, 《1945》라는 수자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가 새겨져 있다.

또한 앞뒤면 윗부분에는 원형구도로 《승리의 나팔수》가, 랑쪽측면 윗부분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형상되어 있다.

아치형의 문둘레는 70송이의 진달래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개선문의 기둥들에는 조각군상들인 《조국해방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장군님을 우러러》, 《새 조국건설 에로!》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은 개선문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사진 라평렬, 글 강진성



산악협곡도시 검덕지구를 찾아서

함경남도 단천시의 검덕지구는 금골, 백금산이라는 부름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덕과 산발들에 검은 바위들만 드러나 있어 《검덕》이라 불리워온 이 고장이 오늘날 우리 당의 손길아래 산악협곡

도시, 광산도시로 천지개벽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자연의 광란이 모든것을 휩쓸어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 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금골과 돈산지구, 대흥, 룡양에 이르는 협곡지구에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며 다양한



건축미와 독특한 형식의 수많은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끝간데없이 뻗어간 산골짜기를 따라 펼쳐진 선경마을들의 살림집창가마다에서는 문명의 새 생활을 누리는 광부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도시부럽지 않은 리상적인 광산도시

에서 새 생활을 누리는 검덕의 광부들은 당의 은덕에 광물증산으로 보답할 하나의 일념안고 생산적양양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사진 황정혁, 최원철
글 강진성





아이들의 배움의 궁전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우리 나라에는 아이들의 꿈을 꽃피워 주고 희망의 나라를 활짝 펼쳐주는 학생소년궁전들이 있다.

그 궁전들중에는 수도 평양의 광복 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학생소년 궁전도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1989년 5월 학생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육교양기지로 일떠섰다.

그후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의 전당으로 보다 훌륭히 개건되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부지면적은 21만 4 000여㎡, 연건축면적은 10만 5 000여㎡에 달한다.

오후시간이면 하루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과외소조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궁전으로 온다.

하루에 5 000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과외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궁전에는 과학, 예술, 체육부문의 140여개의 소조실들이 있다.

또한 1 400여석의 극장, 여러가지 체육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체육관과 수영관이 있으며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전자유희오락관과 립체를동영화관, 천문지식보급실과 선물동물표본관 등도 있다.





그리고 야외에는 자동차운전실습장과 체육운동장이 꾸려져 있다.

이곳에서 학생소년들은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다양한 과외소조활동을 벌리면서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배우고 있다.

궁전에서는 소조원들의 나이와 수준, 체질적특성에 맞게 소조운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년궁전의 지도교원들은 모두 자기 분야의 인재들이며 특출한 성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지난 30여년간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며 3중 세계선수권보유자인 리세광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름난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 후비들을 양성한 자랑스러운 안고 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고 여기에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아이들의 고운 꿈은 활짝 꽃피어나고 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관록있는 교향악단

- 창립 80년을 맞는 국립교향악단을 찾아서 -

우리 나라의 국립교향악단은 80년의 연혁을 가진 관록 있는 연주집단으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1946년 8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첫 연주로 창립을 선포한 악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공연하였다.

교향곡 《피바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교향련곡 《당에 드리는 노래》,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그네뛰는 처녀》,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창립당시 1관편성이었던 교향악단은 1970년 1월 3관편성 관현악단으로 발전하였다.

악단에서는 교향악과 관현악을 인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수 있는 인민적인 음악으로 발전시키는것을 교향악과 관현악창작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있다.

하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곡과 민요를 소재로 하여 선률위주의 관현악전개수법을 적용한 교향악과 관현악작품





초대단장 리면상



첫 지휘자 김기덕

국립교향악단은 1946년 8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첫
연주로 창립을 선포하였다.

국립교향악단은 주체음악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일성훈장을 두차례 수여
받았다.



들을 창작하고 발전시켜왔다.

관현악편성도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배합관현악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국립교향악단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향악과 관현악작품
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교향악작품들도 연주하고있다.

1970년대부터 오늘까지 악단은 중국, 로므니아, 불가리아,
도이칠란드, 폴스까 등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을 활발히 진행
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많은 지휘자, 독주자, 독창가들과의
공동연주를 통하여 음악예술교류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악단에는 민족죽관악기연주가들과 3관편성양악관현악
연주가들을 포함한 백수십명의 연주가들이 있다.

악단의 명성과 함께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작곡가 리면상, 인민배우 지휘자 허재복, 인민배우 지휘자
김병화를 비롯하여 많은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
배우, 공훈배우들이 배출되었다.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펼쳐진 인파십리

지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즐거워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들어선 손님
들은 해안지대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문주로부터 시작하여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한 미를 자랑하는 수백동의 건물들이
백사장을 따라 즐비하게 일떠선 관광
도시의 웅장화려함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궤도전차와 축전지차에 올라 해안
관광도시의 경치를 부감하며 연해
연방 사진을 찍는 사람들, 러장을
풀기 바쁘게 해안가로 달려가는
사람들, 오락장들에서 각종 오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

저저마다 바다물에 몸을 잠그고
푸른 물결을 헤가르는 해수욕장과
각종 유희기재들에 몸을 싣고 웃고
떠드는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봉사조건과 환경이 그췌히
갖추어진 갈마반도의 심리백사장은
매력적인 해안관광문화를 향유하는
인파로 흥성이고있다.



특색있게 꾸려진 급양봉사망들에서 조선 동해 특산의 진미를 맛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다.

수km 구간에 펼쳐진 해양공원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 풍치와 매력을 한껏 돋구어주고 있다.

황홀한 야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로 잠들줄 모르는 갈마반도의 밤은 관광도시의 유정한 정서를 자아낸다.

사진 리평렬, 리철진, 리진혁, 최철민
글 박경철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



수도 평양의 모란봉 청류벽에 이르면 그 맞은편 문수지구의 대동강기슭에 마치 물위에 떠있는 배를 연상케 하며 솟아있는 건축물을 볼수 있다.

2018년 7월에 우리 당의 사랑속에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급양봉사 기지로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다.

3층으로 되어있는 식당의 연건축면적은 2만 4 000여㎡이다.

여러가지 형식의 식사실들이 꾸려져 있는 1층에서 손님들의 눈길을 먼저

끄는것은 철갑상어, 룡정어, 편어, 칠색 송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육질거리는 20여개의 크고작은 실내못들이다.

갓가지 고급어족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는것도 류다르지만 그 많은 물고기들중에서 자기가 먹고싶은 물고기를 직접 고르는 재미 또한 이룰데 없다.

이곳 요리사들은 실내못들에서 건져온 펄펄 뛰는 물고기들을 가지고 즉석에서 요리로 만들어 봉사해주고 있다.



자기가 선택한 음식감이 단 몇분만에
요리사들의 손에서 구미를 함뱍 돌구는
회요리들과 초밥 등으로 만들어지는것
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여러가지 물고기회국수와 수산물
요리들을 봉사하는 국수식사실, 황금해
식사실은 늘 만원을 이룬다.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과 함께 상점이
갖추어진 2층에서는 수산물요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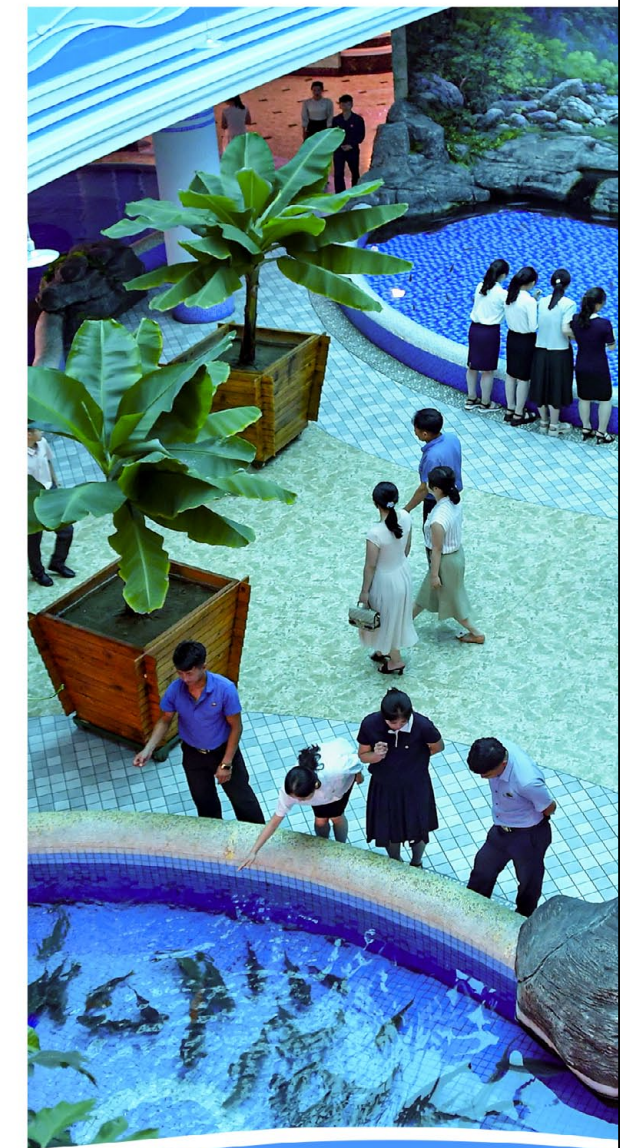
이곳 식사실들에서 봉사하고있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요리들은 그 가지
수만 해도 수백가지나 되어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다.

상점에서 판매되고있는 가공품들은
모두가 국내의 수산물생산 및 가공기지
들의 제품들이다.

부페트식사실과 커피봉사실, 원형
식사실 등이 꾸려져있는 3층에서는
여러가지 수산물요리와 함께 청량음료
들을 봉사하고있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찾아오는
손님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사진 리철진, 리진혁
글 김선경





세계문화유산

개성의 대표적인 력사유적들

우리 나라의 남부에 위치하고있는 개성은 고려(918년-1392년)의 옛 도읍지로서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이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을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과학의 중심지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도시였다.

약 500년동안 고려의 수도로 있던것으로 하여 개성에는 고려시기에 창조된 력사유적과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오늘까지 전해져오고있다.

그가운데서 개성남대문, 왕건왕릉, 고려성균관, 개성첨성대, 선죽교, 표충비를 비롯한 10여개의 유적들은 고려의 문화와 력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유산들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문화를 잘 보여주는 개성시의 력사유적유물들은 오늘도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으며 인류 공동의 재보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개성남대문

개성남대문은 1391년-1393년에 세운 개성성 내성의 남문으로서 7개의 성문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루이다.

돌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있다.

축대는 길쭉하게 다듬은 네모난 화강석으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복판에 무지개문길을 냈다.

남대문은 고려시기의 우수한 건축수법과 기교를 보여주는 우리 나라 옛 건축유산들중의 하나이다.



연복사종

연복사종은 개성남대문 문루우에 있는 고려(918년-1392년)시기의 종이다.

이 종은 1346년에 만들어 연복사(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던 절)에 달았던것이다.

1563년에 화재로 연복사가 불타 없어지게 되자 종을 남대문으로 옮겨왔다.

동합금으로 주조한 연복사종의 크기는 아구리 직경 1.9m, 두께 23cm이며 무게는 약 14t 이나 된다.



왕건왕릉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877년-943년)의 무덤이다.
왕건왕릉은 릉문밖 공원구역과 릉문안의 무덤구역으로 갈라져있다.
고려문화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왕릉제도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월대



송강서원



고려성균관

고려시기의 최고교육기관으로서 개성시 성균관동에 자리잡고있다.
고려는 992년에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을 내고 봉건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고려성균관은 고려시기 국가적인 교육기관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건물로서 당시의 교육제도와 건축술을 보여준다.



선죽교

고려시기에 건설되었으며 당시의 이름은 선지교였다.
1392년 고려의 대학자이며 고위관리였던 정몽주가 피살된 후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돌아났다고 하여 선죽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선죽교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돌다리유적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의 하나로서 당시의 건축술과 돌다리기기술을 보여준다.



표충비

선죽교의 서쪽에 있는 비로서 정몽주의 《충성》과 《절개》를 찬양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왕들이 세운 비이다.
동쪽을 향하여 서있는 두개의 비중 북쪽에 서있는 비는 1740년에, 남쪽의 비는 1872년에 세운것이다.
두 비석은 다같이 바닥돌, 거북기받침과 비몸, 비머리로 이루어져있다.



개성첨성대



개성성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 중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6088055142